



전자산업 침체와 품질경쟁력 향상의 과제

석진철 / 본회 비상근 이사
부품산업협의회 회장
오리온전기(주) 사장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88년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한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카오디오와 소형 TV업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부도가 났고, 하반기부터는 주력산업인 가전제품 수출이 침체를 겪는가 하면 컴퓨터 산업마저 수출과 내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관련산업인 부품업계도 뚜렷한 매출감소 현상을 보이는 등 장기불황의 조짐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진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화된 국제경쟁력에는 기술력과 마케팅력의 취약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첨단기술의 진전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우리 전자산업이 제대로 대응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산업의 수출부진 탈피를 위한 전략에는 기술력과 마케팅력 증진을 중심고리로 한 제품경쟁 전략의 재구축이 선결과제로 떠올라 있다.

하지만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략과 구도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투자여력이 필요하고, 그 투자여력은 비록 열세에 놓여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증진을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어떤 제품이고 잘 챙겨서 팔아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면 구 제품이라도 그 제품 고유의 기능과 성능에 하자가 없이 만들어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최근의 경제기획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불량률은 4.2%에 달하고, 이는 일본의 1.5%, 대만의 2.5%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다. 주요 시장인 對美 수출상품의 불량률은 이보다 더 높아서 '88년의 3.1%, '89년의 4.2%에 이어 '90년에는 6.1%로 급격한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경영일선에서 느끼는 필자의 감각만으로도 이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신제품개발 부족에 따른 판매량 감소도 아닌 이미 판매된 제품의 불량율이 이 정도라면 더 먼 장래의 기술력 증진과 총체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을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우리가 지금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곧 기존제품의 완벽한 품질 유지라 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品質이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으로 풀자면 그것은 하나의 제품이 그 사용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고유한 성질이며, 그것은 곧 여러가지 품질특성(Quality Characteristics)의 집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품질의 좋고 나쁨은 그 제품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 품질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유 성질이나 성능이 바로 품질특성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주로 제조업의 물리적 제품 품질에만 국한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은행, 항공회사 등 서비스 업종에서 행

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기업경영의 질도 중요한 품질특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간의 경제 마찰이 심해지면서는 경제력 향상을 위한 한 국가나 사회의 총체적인 조력이 곧 하나의 품질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오늘의 한국경제와 한국상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지적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의 손 끝이 한국사회의 전환기적 상황 변화로 전에 없이 무더졌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강이 느슨해지면서 근로자의 근로의식이 예전만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손 끝 맵지 못한 것으로 치면 어디 현장의 근로자에게 뿐이겠는가? 제품 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짓고, 이 공장에 자재를 투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만든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련의 과정이 어찌 한 두 분야의 완벽함만으로 가능해지겠는가?

개별 기업으로 보면, 자체내의 모든 인력과 제품 물류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가 추진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공장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검사, 출하,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수출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품질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환경의 경직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에 없이 인력 관리가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얼마나 기업내 인력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였는가를 반성해 보면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기 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미 변화가 진행된 이후의 인력을 관리하려는 태도야말로 그 스스로의 품질수준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손 끝 맵지 못함은 곧 그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손 끝 맵지 못함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오늘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한 돌파구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기업 밖의 사회간접자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맺고 있는 대(對) 정부 행정절차가 우리나라 처럼 까다로운 곳이 없고, 도로와 항만시설의 부적합한 여건이 초래하는 기업의 손실 비용이 엄

청난데다 금융을 비롯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품질 문제를 기업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국상품의 품질경쟁력 저하 문제가 필자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앞으로 계속 지적된다면, 그래서 한국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수출시장에서 '상식'으로 통하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것이다. 전자업계의 경우 이미 세트 분야는 일본과 동남아 후발경쟁국들에 밀려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부품분야에까지 밀린다면 한국의 전자공업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다소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품업체간 상호 구매방식이나 국내 세트업체에 대한 부품업체 스스로의 품질수준 향상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짐지고 있다는 거시적 안목이 절실히 필요하다. '92년도에는 우리 전자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